

곡성군, 한의약 경로당 순회 진료 군민 건강 살핀다

낙상 예방교육·한방 양생 교실 등 매주 1회 읍내 경로당서 진행 한의과 공중보건의 한방 진료 군민 누구나 진료서비스 이용

곡성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 경로당 순회 진료에 나섰다. 낙상 예방 교육부터 한방 양생 교실까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한의약 경로당 순회 진료 서비스는 매주 1회 읍내 경로당에서 진행되며 보건지소에서도 마을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는 곡성군민 누구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한방 진료, 침 치료, 약제 처방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원 농업인재활센터에서도 한

방 진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중추신경계 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주 1회에서 올해 주 2회로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로당 순회 진료 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낙상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 양생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곡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음 양생을 중심으로 웃음치료, 실버 인지훈련, 실버 체조, 손가락낙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2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총 15회에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 곡성군 제공

펼쳐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농업인재활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360-8098)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과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한방 진료 서비스와 낙상 예방 교육을 통해 통증 완화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100세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인구청년정책 솜품영상 공모 화순군, 10월31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에 긍정적 가치관 제고를 위해 '2024 화순 인구청년정책 솜품 영상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공모 작품의 주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함,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문제 인식 개선 등 인구·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면 된다.

공모 참여 시 제출 영상은 30초~60초 미만의 솜품 영상으로 1080·1920픽셀 이상이어야 하며 출품 장르는 광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제한은 없다.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 1편(100만원), 최우수 1편(60만원), 우수 2편(각 40만원), 장려 3편(각 20만원) 등 총 7편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영상과 참가서류를 인구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walkbook100@korea.kr)로 보내면 된다.

조미화인구청년정책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남도서 한달 여행하기 in 함평' 함평군, 참가자 모집

함평군이 전남도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함평군은 22일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2차)'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은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함평 장기 체류 관광객이 SNS 홍보 미션을 수행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전남도·광주시 외 주소를 둔 관광객 중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여행하면서 △여행 후기 작성 △체험 프로그램 참가 △나만의 함평 숨은 명소 발굴하기 등의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을 하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여행유튜버, 유명예술인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관광정책실(061-320-2204)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 일자리 박람회 연다 역대 최대규모 70개 기업 참여

나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일원에서 '제10회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잡페스티벌은 한국전력 그룹사를 포함,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에너지밸리 중심지로 도약한 나주시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일자리 행사다. 참여기업 현장 면접, 1:1취업 컨설팅,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등을 진행하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 취업을 목표로 역량을 다져온 구직자를 연결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을 초청해 열리는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4와 연계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 기업들이 참가한다.

올해 현장 참여하는 주요 기업은 ㈜남원터보윈, ㈜더조은에너지,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에스앤에스, ㈜위테크, ㈜한빛전기, 가람전기(주), 동우전기(주), 쌍용전기(주), 이화산업전력(주), ㈜스위코진광, 중앙산업(주), 로웰에스엠, 가보팜스, 해미로, 플랜티팜, 하이옥스, ㈜인터테크, 유성계전, 대진이엔피, 남경에스텍, 지엠케이 등으로 온라인 참여기업 45곳을 포함해 70여 업체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현장, 사무, 기술, 설계, 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은 온라인 채용관에서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숨은 인재 발굴에 나선다.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LINC3.0사업단, 나주·광주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계 기관에서도 다양한 연령대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 구직정보 등을 알차게 제공한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는 현장 멘토링을 통한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김용의 기자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초등생들이 VR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11월까지 초등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첨단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을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어린이도서관, '실감형 동화체험' 운영

곡성어린이도서관이 11월까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첨단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을 운영한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실감형 동화체험'은 VR 기술을 동화에 접목하여 5면으로 구성된 몰입형 체험 공간에서 진행되는 미래형 독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동화 구연 선생님의 지도 아

래 벽과 바닥을 터치하며 VR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온몸으로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끝없는 마야의 모험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11월에는 장화 신은 고양이 등 총 4편의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내년부터 새로운

5면 콘텐츠인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 엄지공주, 방귀시합 등 총 6종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미래형 독서 체험에 걸맞은 첨단 IT기반 콘텐츠이기에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실감형 동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레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대나무 아지트 축제' 참여자 모집

10월10일까지 접수

(재)담양군문화재단은 전국 초·중학생 포함 가족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역사문화공원 일대에서 2일간 열리는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인 대나무를 주제로 10명의 작가(홍정민, 장성원, 박문중, 노여운, 안진석, 박기태, 강선호, 이재문, 이승일, 엄기준)와 함께 팀

공동작업 활동으로 협력의 중요성과 예술적 성취감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대나무의 가치를 재발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10월 19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전워크숍에서는 대나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참여작가와 함께 설계를 구상,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팀원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아지트 제작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완성된 아지트를 함께 즐기는 '담양대나무아지트라운딩'은 10월 2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체험재료, 식사, 다과, 기념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접수는 포스터 및 모집공고 네이버폼(QR코드) 신청을 통해 10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dy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대나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담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진일보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QR code]